

남성의 틈새에서 새어나온 여성의 목소리*

강소영**

<차 례>

1. 서론
2. 논의를 위한 전제
 - 1) 은유의 정의
 - 2) 어휘체계에 반영된 신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그 변화
3. <신여성> 은유표현 양상
 - 1) 인간이 아닌 것으로 신여성을 형상화(조사를 바꿨습니다)
 - 2) 인간의 특정 속성을 부여하여 신여성을 형상화(조사바꿈)
4. <신여성>여성필진의 은유표현 속에 담긴 성차적 특징
5. 결론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신여성』을 대상으로 여성과 관련한 은유 표현을 찾아내고 이를 남성과 여성 작가별로 분류, 성차적 의식이 은유 표현 내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20세기 초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해 여성의 해방을 부르짖는 목소리가 힘을 받아 여성은 가정 내에서 밖으로 나서게 되었다. 사회는 학교에 다니고 직업을 가지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을 경험한 그녀들을 ‘신여성’이라 불렀는데, 이들에 대한 평가는 이중적이었다. 남성 지식인과 더불어 조선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집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어느 순간 허영덩어리 쓸모없는 집단으로 평가절하되기도 하였다. 본고는 당시 신여성 담론을 이끌어갔던 <신여성>을 텍스트로 하여 그 안에 사용된 은유표현을 도구로 삼아 분석하였다. 먼저 당시의 사회 상황을 ‘남+X’, ‘여+X’ 어휘체계를 토대로 재구해 보았으며 그 결과 여성의 사회진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L0015).

** 이화인문과학원 HK 연구교수

출로 다양한 어휘가 신생되었지만 아직까지 여성향 편재형에 머물러 있어서 여성이 확고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였음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신여성> 여성 필진들이 쓴 글을 대상으로 모아놓은 여성관련 은유표현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드러났는데, 봉건질서 체제 아래에서 지내던 이전의 상황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여성을 종, 인형, 노리개 등으로 은유화한 데서 알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시각은 당시 근대적 담론을 이끌어갔던 남성지식인과 공유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일정 부분 남성지식인과 동일한 은유표현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남성 지식인이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입으로만 떠들어댔을 뿐, 이를 위한 사회적 제도마련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 필진과 남성 필진의 은유 표현은 미세하게나마 서로 차이를 보였다. 본고는 이런 점이 여성 필진과 남성 필진의 성적 차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여성이 남성보다 진일보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판단하였다.

주제어 신여성, 은유, 성차적 의식, 여성은 종이다, 여성은 기생충이다

1. 서론

신여성은 1920년대 한국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여성을 지칭하는 말로, 당시 1919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나온 다양한 잡지들 속에 그 모습이 재현되었다. 이들 중에서 <신여성>은 신여성 담론이 형성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잡지로, 신여성이 누구인지를 언표화하고 유포함으로써 독자들의 입에서 신여성을 말하게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식민지 조선에서 신여성은 어느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그들이 원하는 이상향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등등의 신여성의 일반적 성격 규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근대적 여성 주체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기도 하고 지배되고 타자화되는 대상으로 놓이기도 하였지만, 신여성이 당시 가부장제와 민족주의의 통제 아래에서

저항하는 일군의 무리로 존재하였음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이다.¹⁾

본고는 기존의 연구를 심화하기 위해 여성관련 은유표현을 대상으로 하여 당시 여성을 둘러싼 개념체계를 해석해 보려고 한다. 은유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불분명함 때문에 독자에게 더욱 폭넓게 해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은유를 통해 전달된 필자의 의도는 단언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거둘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은유표현을 성별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남성과 구별되는 여성의 목소리를 찾아보려고 한다. 남성에게 여성문제는 지식인이 다루어야 할 사회문제일 뿐이지만, 여성에게 이는 ‘봉건:근대’의 대립 구조 속에 ‘남성:여성’의 대립구조를 한 겹 더 설정해야 하는 성차별적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입장에 서서 자신을 신여성이라 불렀던 여성들이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였으며 그것이 근대적 이상과 괴리를 빚었는지, 그들의 목소리로 재현된 여성관련은유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이러한 접근은 그들의 손으로 직접 언술하였던 ‘여성은 NP다’ 목록과 자신의 머릿속에 잠재된 사유를 무의식중에 노출시키는 ‘여성=을 VP’ 은유 목록을 체계화함으로써 실현될 것이다.

2. 논의를 위한 전제

1) 은유의 정의

은유는 “사물을 비유 또는 설명하는 데에 본뜻은 숨기고 겉으로는 다

1) 가부장제와 민족주의의 통제는 김양선(2000), 전은정(2000), 이명선(2003), 김수진(2009) 등을 통해 지적되었으며, 이들은 당시 여성을 둘러싼 담론이 발전적이었다기 보다는 여성을 다시 가정으로 소환하거나, 남성이 은밀하게 여성의 행보를 가로막는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만 비유하는 형상만 내놓는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내 마음은 호수요’와 같이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눈에 보이는 호수로 구체화하여 화자의 감정을 호수 속에서 찾아내는 방식인데, 서로 다른 두 대상이나 개념 사이의 유사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의미의 증폭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아래는 결혼의 한 축인 부인을 형상화한 은유표현으로 당시 사람들의 의식 속에 머물렀던 추상적인 결혼제도라는 관념에 접근해 가고 있는 예이다.

(1) 가. 전형적 여성, 즉 어려서는 인형을 안고 놀며 커서는 **인형**이 되어서 남자에게 안기는(6권10호, 현대불란서여류작가군상)

나. 소극수인 출신 신여자들을 위한 연애이상주의의 소극적 시비설이 아니면, 일부도회에서 남자의 **기생충** 노릇 박게 못하는 특권계급의 부인계를 위한 위안기사 비슷한 것밖에 더만한 농촌의 부녀를 위하여 그럴듯한 눈짓 거리가 무엇 잇섯습니까?(3권1호, 긴급동의합니다)

(가)는 결혼을 하여 아내가 되는 것을 남자의 인형이 되는 것으로 표현한 예문으로, 당시의 결혼한 여성이 남성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었는지 알려준다. (나) 역시 일부 결혼한 여성이 기생충으로 은유화 되어 남편에게 들러붙어 있는 벌레처럼 여겨지고 있음을 보인다. 우리가 은유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일상적 삶에서 항상 다른 것으로 다른 하나를 생각하고 있음이다. 예를 들면 ‘나의 결혼은 파트너 관계인가, 일생을 함께 해나가는 여행인가, 아니면 외부세계에서 나를 지켜주는 안식처인가 아니면 나의 피난처인가?’ 결혼에 대한 이러한 일상적인 개념화방식 중에서 어떤 은유 표현을 선택하느냐는 결혼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1)의 예는 결혼을 장난감을 사들

이는 것(가)이나 별레 한 마리를 키우는 것(나)으로 생각하는 남성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이는 응당 결혼을 파트너 관계로 보는 배우자와의 시각차를 가지게 되며, 따라서 둘 사이의 관계에서 충돌을 빚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충돌은 결국 여성의 문제가 첨예화된 지점이므로, 성별로 여성관련 은유표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피고 이를 통해 1920, 30년대 당시 신여성의 삶을 살피는 것은 그들이 폭로하려고 했던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물의 상태나 움직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인 은유는 주로 문학이나 철학에서 쓰이다가 오늘날 여러 영역으로 확장되어 단순히 유사성의 발견이 아니라 의미나 감정의 새로운 창조까지도 가능한 개념으로 확장되었다.²⁾ 은유는 단순히 언어의 문제 즉 낱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인간의 사고과정을 보이는 것이며 사회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2)가. 녀학생을 볼 때에 무엇보다 자기가 **거느리고** 살을 안해나 며느리로 썸 보는(4년4호, 일반 남자의 그릇된 선입견)

나. 夫君 河氏의 感化 **미테** 佛教의 大慈悲한 품 속에 들어(7년7호)

(2)는 [남성은 위, 여성은 아래] 은유의 예시다. (가)는 손아랫사람을 데리고 있음을 뜻하는 ‘거느리다’를 서술어로 사용하여 여성이 아래에 있음을 보이며 (나)는 부사어 ‘밑에’로 남성과 여성의 위아래 위치를 보여준다. 위-아래 공간화 은유는 [미덕은 위: 타락은 아래], [좋은은 위: 나쁜은 아

2) Lakoff & Johnson(1980)의 『Metaphors we live by』가 출간된 이래 많은 학자들이 이 계열을 따라 은유 연구를 하였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은유는 언어의 특별한 부분이 아니라 일상적인 부분이라는 것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노양진, 나익주 역, 『삶으로서의 은유』, 서광사, 1995. 298쪽, 참조.

래] 등의 예³⁾에서처럼 일반적으로 행복이 위 지향성이다. 따라서 아래에 있는 여자의 위치를 말하는 이 은유는 행복하지 못한 여성의 현실을 알려 주는 것이라 하겠다. 본고는 이와 같이 한 사물을 다른 사물에 대입하여 좀 더 구체적인 현실로 드러내는 ‘여성은 NP이다’ 은유와 무의식중에 개념화된 은유를 보이는 ‘여성은/을 VP’ 두 가지를 축으로 하여 신여성을 대하는 남성필진과 여성필진이 가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⁴⁾

2) 어휘체계에 반영된 신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그 변화

1920년대 초 일본 유학출신의 여성들을 통해 신여자라는 용어와 이념이 유입된 이후 여성해방운동을 추구하는 여성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개벽사의 <신여성>이 공공성, 주기성, 대중성을 확보한 잡지로 자리를 잡음으로써, ‘신여성’은 조선사회를 개조시킬 주체로 설정되었다. <신여성> 논설문 곳곳에 여성의 역할을 강하게 요구하는 글이 실리기 시작했고 여성 역시 이에 호응하여 여성해방운동의 선두에 서길 요청하였다. 이들이 내세운 논리는 여성들도 학교에서 배움을 익히며, 배움이 자신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여성, 농촌여성 등의 계몽에 파급되어, 조선의 여성들이 구습을 벗어나 남녀동등한 사회로 나아가자는 것이

3) 기분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한 순간에 곤두박질쳤다, 아주 고급스런 솜씨를 뽐냈다,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다 등은 [좋은은 위 : 나뽀]은 아래 은유의 예이다. 그는 고결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다, 저급한 속물근성을 드러냈다, 타락의 깊은 늪에 빠져 헤어나 오질 못한다 등은 [미덕은 위 : 타락은 아래] 은유의 예이다.

4) 본고는 신여성 전권을 대상으로 은유표현을 찾아 목록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영인과정에서 3권3호, 3권4호, 4권5호, 5권1호, 5권2호, 5권7, 8호, 6권 4,5,6,7호, 7권11호, 8권1,2,3호가 누락되어 분석과정에서도 일부 예들이 누락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은유표현은 자주 사용되어 결국 기존 단어의 새로운 파생의미로 등재되는 역사적 과정상, 본고에서 <조선어사전><큰사전>의 의미기술을 살펴 본 것이 이를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었다.

사실 근대, 자유, 해방 담론의 유입 이후 여성해방운동의 주체로 설정된 ‘신여성’은 지식인들이 필요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낸 신조어이다. 당시 1920년, 1930년대는 서구문물의 유입으로 새로운 어휘들이 생겨났고 이를 반영하듯 <신여성>에도 알아두어야 할 어휘를 정리, 사전란을 마련해 두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임시어, 잠재어로서 머물렀을 것이며, 일부는 사전에 표제어도 등재되어 당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사전에 등재된 어휘의 목록을 검토하여 당시 여성사회를 지배하였던 담론을 살펴보는 것은 <신여성> 내의 담론이 해당 잡지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흐름이었음을 보이는 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조선어사전>과 <큰사전>에 실린 ‘남+X’, ‘여+X’형의 어휘들을 대상으로 어휘체계에 반영된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알아 보려고 한다. <조선어사전>은 1920년에 조선총독부에서 펴낸 사전으로, <신여성> 발간 시기보다 앞서 어떤 어휘들이 있었는지를 보이는 예로 적절하다. <큰사전>은 한글학회에서 오랫동안 한국어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1947년에 발간한 것으로, 1920,1930년대에 쏟아져 나온 많은 임시어, 잠재어 중에 사회적 영향력이 높아 표준어로 등재된 것이 어떤 어휘들인지를 잘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더군다나 두 사전은 <신여성>의 발간 전과 발간 이후에 나온 책으로, 이 둘의 어휘목록을 비교해 보면, 신여성이 나왔던 시기에 어떤 단어가 새로 생겨났는지를 알 수 있어서 당시의 사회현상을 재구해 보는 데 유용한 자료이다.

본고는 우선 <조선어사전>과 <큰사전>의 ‘남+X형’과 ‘여+X형’의 어휘목록을 비교한 뒤, 이를 성별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휘인지를 살피기 위해 일반형, 남성형, 여성형으로 분류하였다.⁵⁾ 그리고 <큰사전>에 새롭

5) 국어의 성별어휘체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출발단계에 있어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게 등재된 어휘목록을 유형화해 보았다. 국어의 어휘장에는 [+남성], [+여성] 그리고 이들의 상위어 항목이라는 고정된 세 항을 성원으로 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구조화된 어휘장이 있는데(아래 (1)), 이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아래 (2))도 있다. 이처럼 형태상 성별 특징을 가지는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성별 특징을 보이지 않는 것

	<일반항>	<남성항>	<여성항>
가.	종	남종	여종
나.	직공	남공	여공

(2) 성별 특징을 보이는 것

	<일반항>	<남성항>	<여성항>
가.	노	남노	X
	사당	남사당	X
cf.	일색	남중일색	X
나.	숫	X	숫처녀
	학생	X	여학생
	점원	X	여점원

(1)은 상위어 일반항 아래 남성항과 여성항 모두가 존재하는 것으로 성

상태이다. 선행연구로서구현정(1995), 김창섭(1999)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이들은 현대국어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고의 논의와는 차이가 있다. 후속연구들이 계속 이어지면 1910년 이후의 성별어휘의 변화양상을 체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에 구애받지 않는 균형형이다.⁶⁾ 이에 반해 (2-가)는 여성향이 결여된 어휘들이며 (2-나)는 남성향이 결여된 어휘들로, 남성향, 여성향 편재어이다. (2-가)형은 제시된 것 정도에 불과하나 (2-나)는 이 외에도 여신자, 여교원, 여배우, 여류문인, 여류비행가, 여류시인, 여류작가 등이 있다.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형성규칙에 따르면 균형형이 기본이지만, 여성이 어떤 사회에서 직업, 지위를 가지는 것이 현실에서 유효적인 현상으로 여겨진다면 그러한 경우 여성을 가리키는 ‘여+X형’은 여성을 유효화하면서 만들어지게 된다. (2-나)의 여성향 편재항은 그러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가진 어휘이다. 역설적으로, (2-가) 남성 편재항은 ‘여성향=일반향’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가 확고해졌음을 보이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로 제시된 ‘사당’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들 어휘목록은 여성의 지위변화를 보여주는 예로 적절하지 않다. ‘사당’과 함께 참고로 지적해 둔 ‘일색’에서 보이듯이 이들 어휘는 학식이 아닌 춤과 노래, 외모와 같은 기예를 바탕으로 살아나야 했던 여성들의 운명을 보여주는 어휘이다. 더구나 ‘X+녀’형으로 남성향 없이 오직 여성향만 존재하는 ‘추녀’와 같은 예는 여성의 외모를 중시하였던 사회문화적 현상을 추측케 하기 때문에, 남성 편재항의 존재는 오히려 여성의 사회적 위치에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예로 해석할 수 있다.⁷⁾

6) <조선어사전>은 ‘직공/여공’만 있고 ‘남공’은 등재되어 있지 않아 여성향 편재항 어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큰사전>에 균형항으로 나타난 것 역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7) 노비 즉 남성(奴)과 여성(婢)을 모두 이르는 상위어 아래 하위어 ‘남노’만이 있는 것도 남성향 편재항이다. 이전까지 ‘奴’는 상위어 구실을 하였고 오히려 이에 대비한 ‘女奴’가 고문서에 가끔 언급되는데, ‘女奴’는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채 상대항인 ‘男奴’만이 사전에 등재된 특이한 예이다. 의미와 사용환경의 변화를 짚어보면, 이 역시 여성의 지위가 확고해졌음을 보이는 예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남성 편재항의 다른 예들처럼 여성에게 부여되는 특정 자질을 암시하고

(2-나)는 남성향이 없는 여성향 편재형으로, 일반향이 남성을 대신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조선어사전>에 없었다가 <큰사전>에 실린 어휘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는 1920년대 1930년대의 사회변화양상을 지시하는 어휘라 하겠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사회의 변화로 여성의 사회활동이 공식화되었음을 알려주는 어휘여서 눈길을 끈다. 물론 여무, 여악, 여알 등 고래의 제도로 당시 의미를 잃어가는 어휘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점원, 여의사 등과 같이 새로이 생겨난 직업을 말하거나 여권, 여존남비, 남녀평등(권)과 같이 여성의 지위에 대한 각성을 담고 있는 어휘들이다.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달라졌음을 인지한 언중들의 의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물론 여성 직업군은 아직 대별되는 남성향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여성의 지위가 예상보다 높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반항만이 존재하다가 특정 영역에서 여성의 존재가 문제가 될 만큼 크게 느껴졌을 때 여성향이 출현하고 그 비중이 더욱 무거워져 남성의 존재가 가지는 비중과 대등해졌을 때 남성향이 출현하게 되는 과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추측이 가능하다⁸⁾.

사전에 등재된 신조어 목록을 정리하여 제시할 때 드러났듯이, 당시 1920년대 1930년대는 여성의 자각과 그에 따른 사회적 진출이 사회에 만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신여성>담론에 등장하였던 여성의 각성, 여성의 주체적 사회활동 등의 구호를 일반인 모두가 사회적 흐름으로 여기

있는 것으로 보인다.

- 8) 여성의 진출이 뚜렷한 분야는 일반항/남성향/여성향(선생/남선생/여선생)이 고루 분포하지만 아직 여성진출이 드문 분야는 남성향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의사/*남의사/여의사). 선생/남선생/여선생은 <큰사전>을 개정하여 폐낸 <우리말큰사전>에 표제어로 모두 등재되었으나 남의사, 남판사 등은 아직도 임시어의 신분에 머물러 있어 여성의 사회진출정도를 대하는 일반인의 인식을 보여준다 하겠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김창섭(1999)를 참조할 것.

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바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논제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갈등적인 견해가 노출되기도 한다. 신여성 담론이 필진의 성별차로 인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다음 절에서는 남성 필진과 여성 필진이 공유하는 바와 차이가 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여성 관련 은유표현들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신여성〉 은유표현 양상

앞 절에서 1920년 1930년대 지식인들은 여성의 해방,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세상,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세상을 꿈꾸었음을 보았다. 그러나 당시 남녀 어휘체계 속에서의 여성해방론은 아직은 걸음마를 떼는 아기와 다를 바 없었다. 이러한 전제 아래 여성 지식인들이 여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었는지를 살피기 위해 은유표현을 모아보았다. 여성 필진이 사용한 여성 관련 은유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현재의 비참한 처지를 고발하는 은유이다.⁹⁾

(3)가. 괴어코 그 몸으로 하여곰 돈 있거나 명예잇는 남자의 **종이 되거나 노리개가** 되기를 달게 너기게 되기에 (3년1호, 가난한 새해를 마지하는 때)

나. 우리는 그들의 **기계**에서 지나지 안으니까요 **인형**보담도 완전한 사람으로서 싸워야지요.(5권4호, 여학교졸업생이동좌담회)

9) 아래 제시된 예문 중에는 강소영(2010)에 언급된 것도 섞여 있다. 강소영(2010)은 〈신여성〉 특별호만을 대상으로 한 데다가 남녀의 구별 없이 어떤 대상을 향한 은유였지만은 논의의 초점으로 맞추어 기술하였다. 따라서 동일 예시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남녀 필진을 분석의 기준으로 놓고 분류하기 위함일 뿐, 동일 논리를 반복하기 위함은 아님을 미리 밝힌다.

(3)은 남자의 종, 노리개, 기계, 인형 등으로 여성을 은유화한 예로, 이를 다시 나누면 인간이 아닌 것을 여성으로 형상화하거나 인간류 중에서 여성의 은유표현으로 사용된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용되다가 은유적 사용이 빈번해지면 해당 어휘의 제2, 제3의 의미로 등재되는 과정상, 본고는 신여성을 은유화한 어휘들의 사전적 의미를 검토하여 1920, 1930년대 그들의 은유적 쓰임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은유표현의 체계화를 시도해 보려 한다.

1) 인간이 아닌 것으로 여성을 형상화

인간의 특정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로 은유화하는 것은 은유의 기본이다. 우선은 이전부터 정의 내려왔던 ‘여자는 꽃이다’ 은유가 눈에 띈다.

(4) 아모것도 모르며 모든 것이 저만 역이고 고읍고 어엿부게 맺친 봉오리를 밋친 바람이 휩쓸어다가 닥쳐서 봉오리 목아지를 스러뜨릴 때 난 암홀지 쓸인지 역 알 수는 업스나(2년12월호, 과거일년을회억하고서)

여성을 꽃으로 부르는 것은 오래 전의 일이다. 그러나 사전적 정의를 검토해 보면, ‘꽃’은 <조선어큰사전>(1920)과 <큰사전>(1947)에 비유적 의미로 기술되지 않았다. <큰사전>을 개정한 <우리말큰사전>(1991)에 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은유체계가 있음을 인정하였다.¹⁰⁾ 이는 [여성은 꽃이다]가 사은유가 아닌, 1920, 1930년대 당시 활발하게 사용 중이었음을

10) 꽃 花 (조선어사전, 1920)
 꽃 現花식물의 생식관(큰사전, 1947)
 꽃 ①꽃
 ②젊고 아름다운 여자의 비유(우리말큰사전, 1991)

보이는 바이다. 이처럼 여성을 인간이 아닌 개체로 은유화하는 예는 이외에도 [여성은 동물이다][여성은 노리개다][여성은 인형이다][여성은 기계이다]를 들 수 있다.

(5) 가. 자기는 꼼작 아니하면서 여자만 **부려먹기**를 쓰리지 안는다.(3권11호, 연인도 폭군)

나. 우리녀자는 남자의 **노리개**가 되어 무리한 가장이란 자에게 구속을 바든 우리가(4권4호, 신여성번민호를 보고)

다. 우리는 그들의 **기계**에서 지나지 안으니깐요 **인형**보담도 완전한 사람으로서 싸워야지요.(5권4호, 여학교졸업생이동좌담회)

사전상의 정의를 보건대, 1920년 당시 여성을 인형이라 칭한 것(5-다)은 사람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으로 여성을 은유화하기 위해서였다. <조선어사전>에는 사람의 형상을 의미하는 단어로 기술되었다가 <우리말큰사전>에 가서야 남의 말을 따르는 사람을 비유하는 어휘로 기술되어¹¹⁾, 1920, 30년 당시에는 은유적 쓰임이 개화하기 시작하였던 때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신여성> 여성 필진은 여성을 자기 마음대로 대하는 남성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 장난감이라는 구체적 사물로 의미의 확장을 이룬 ‘인형’을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노리개(5-나) 역시 구체적인 사물을 지시하다가 취미삼아 가지고 노는 물건이라는 비유적인 의미를 담기 시작했고, 이러한 비유적인 의미가 특히 여성에게 자주 사용되었음을 확

11) 가. 인형 사람의 형상(조선어사전, 1920)

나. 인형 ①사람의 형상

②사람의 형상과 같이 만든 장난감(큰사전, 57)

다. 인형 ①사람의 형상

②사람의 형상과 같이 만든 장난감

③꼭두각시 ③(우리말큰사전, 1991)

인할 수 있도록 노리개칩이라는 또 다른 단어를 파생시키기도 하였다.¹²⁾ 결국 인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노는 물건처럼 취급받고 있었던 당시 여성의 현실이 인형과 노리개를 여성의 은유로 선택한 필진의 의도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20년대 사전에 나타나지 않다가 40년대 이후 제2의 의미를 기술하여 20, 30년대 은유표현으로 활발하게 쓰였음을 보이는 것은 기계(5-다) 역시 마찬가지이다. <조선어사전>에는 제조 생산하는 물건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만을 가지다가 <큰사전>(1947)에는 자주적이지 못한 사람을 비유하는 의미를 획득하였다. 물론 <우리말큰사전>(1991)에 판에 박은 듯이 동일한 일처리를 보이는 사람을 비유하는 또 다른 의미로 파생되었지만, 1947년 간행된 <큰사전>이 1920년대의 의미를 반영하여 기술하였던 것에 유추하면¹³⁾ 당시 여성이 기계로 은유화된 것은 자주적이지 못한 여성의 모습을 비판하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다.

-
- | | | |
|------------|-------------------|--|
| | 꼭두각시 | ③남의 부림에 따라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
| 12) 가. 노리개 | | 금, 은, 온갖 패물로 갖은 모양을 만든 것(조선어사전, 1920) |
| 나. 노리개 | | ①금, 은, 온갖 패물로 갖은 모양을 만든 것 |
| | | ②취미로 가지고 노는 물건 |
| | 노리개칩 | 나이가 젊고 얼굴이 아름다워서 귀엽게 데리고 노는 적은집·화초칩(큰사전, 1947) |
| 13) 가. 機 器 | 機械 기계(조선어사전 1920) | |
| 나. 기계 | | ①사람의 힘이나 동물의 힘이나 자연의 힘을 받아 움직여 일하여 제조 생산하는 물건 |
| | | ②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비유 |
| | 기계적 | ②활동에 自主의 정신이 없이 다만 남의 명령을 좇아 움직이는 일(큰사전, 1947) |
| 다. 기계 | | ①사람의 힘이나 동물의 힘이나 자연의 힘을 받아 움직여 일하여 제조 생산하는 물건 |
| | | ②생각, 행동, 생활방식이 정확하거나 판에 박은 듯한 사람을 비유(우리말큰사전, 1991) |

지금까지 꽃, 인형, 노리개, 기계와 같은 사물을 들어 당시 여성에게 가해진 억압요소를 살펴보았다. 인간의 특정 속성을 부여하여 여성을 은유화한 예 역시 여성의 주체적인 모습을 요구하는 여성 필진의 입장을 담은 예인데, 이는 절을 달리하여 살펴보겠다.

2) 인간의 특정 속성을 부여하여 여성으로 은유화한 표현

사람이 사람으로 은유화되는 것은 ‘인간’이라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은유적 표현이라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신여성>에 나오는 여성관련은유는 당시의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반영하듯이 신분질서의 변화에 따라 원의미가 박제화될 수밖에 없는 어휘이거나 원의미와 달리 상대를 낮잡아 표현하기 위해, 즉 대상의 특정 속성에 강조를 두어 의미를 부여하는 어휘이므로 은유적 표현으로 처리가능하다.

이를 테면 ‘종’이 대표적인데, 종은 1920년 <조선어사전>, 1957년 <큰사전> 발간 당시에도 비유적인 의미를 획득하지 않았다가 1991년 <우리말큰사전>에서 ‘엎매여 명령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란 비유적 의미로 기술되었다.¹⁴⁾ 신분질서의 붕괴로 이전의 흔적으로만 남았으며 따라서 ‘종’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는 없었다. 이러한 의미변화에 따라 여성을 종으로 형상화한 것은 남에게 엎매여 사는, 결코 주인으로 살 수 없었던 여성을 은유화하여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6) 가. 항상 맞출로 **엎매인 것** 가튼 늦김이 잇서서(4권4호, 기술사생활

-
- 14) 가. 종 ①남의 집에 몸이 팔려 대대로 그 집에서 천한 구실을 하는 사람(조선어사전, 큰사전)
 나. 종 ①남의 집에 몸이 팔려 대대로 그 집에서 천한 구실을 하는 사람
 ②남에게 엎매이여 그 명령에 따라 일을 하는 사람을 비유
 ③충실한 일꾼 비유 (우리말 큰사전, 1991)

이 이모양저모양)

나. 우선 조선각당 부녀들은 음식과 의복의 **중(노예)이** 되어 (3권1호, 세가지를 통틀어)

다. 음식 잘하고 심부름 잘하는 **계집 하인**이 잇는 려관에 돌아오는 것 밧게 되지 못하고(2년11월, 남녀공개장)

[여성은 종이다]는 <신여성>에서 여성 필진이 가장 즐겨 사용한 은유로 중, 노예, 시종군, 엮어매다, 데리다, 거느리다, 부리다 등의 어휘들로 표현되어, 여성 해방이 도래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여성은 죄인이다] 은유가 있는데, ‘죄인’은 <큰사전>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기본의미 외에 상중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일컫는 말이란 의미를 추가, 정의해 두었다.¹⁵⁾ 1930년 당시 참담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이르는 말로 은유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은유표현들에 ‘끌려가다, 감금되다, 백방되다’ 등이 있다. 아래에서처럼 이 은유는 죄인처럼 속박된 현실에서 해방되기를 꿈꾸는 신여성의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

(7) 가. 죄 업는 희생을 당하며 **감옥가튼 생활**을 하던 우리 녀성도(3권5호, 우리의 책임관)

나. 작년 가을에 혼인이 걱정된 것을 싫다 싫다 못하여 기어코 시집에 **간히는** 몸이 되어(2권5호, 상급학교에 갈 수 업는 졸업처녀의 번민)

15) 가. 죄인 죄를 지은 사람(조선어사전)

나. 죄인 ①죄를 지은 사람

②상중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일컫는 말(큰사전 1957)

세 번째로 여성을 혼자서는 뭔가를 할 수 없는 아이나 병신과 같은 존재로 은유화시키는 경우가 있다. 병신은 몸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이르는 말로, <큰사전>에는 물건까지 의미확장이 있었음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우리말큰사전>에 남을 욕하는 말이 추가 기술되어 사용 영역의 확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단 <큰사전>에 기본 의미 이외에 파생의미의 기술이 존재함은 병신의 은유적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는데, 병신은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는 대상처럼 여성을 놓고 바라보는 시선을 담고 있다. 피동형 ‘길리우다’, 시혜의 ‘-어 주다’ 등을 관련은유표현으로 분류한다¹⁶⁾.

(8) 가. 아침부터 밤까지 몸땀이나 내고 있는 여자가 그 남편에게 부양이 길리웁을 뵈고있는 것임은 사실입니다. (3년1호,안혜에게 월급을 주라)

나. 이 번뇌의 폭탄이라는 것이 만드시 남이 지어 너어 주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3년11호,우리 여성의 번뇌를 논하라)

16) 가. 아침부터 밤까지 몸땀이나 내고 있는 여자가 그 남편에게 부양이 길리웁을 뵈고 있는 것임은 사실입니다. (3년1호, 안혜에게 월급을 주라)

나. 첩 두고 길느지 말고 학교붓잡고서 어린이 좀 길러보지요(3권2호, 부인운동의 조류)
다. 우리부모는 돈과세력, 얼굴과 공부 이것에 맞쳐서 자기의 귀여운 딸자식을 헌신짝 버리드시 그리로 주어버렸답니다(4권10호, 훗한 씬)

(가)는 ‘기르다’의 피동형 ‘길리우다’로 표현하는 데 더 나아가 이를 다른 사람이 가하는 행동 ‘뵈다’, 즉 [다른 사람이 가하는 행동을 당하거나 입다]의 의미를 가진 보조동사를 사용하여, 이중피동의 구조를 가졌다. ‘기르다’는 (나)에서 보이듯이 첩이나 어린이처럼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없던 대상을 목적으로 취하는 용언이다. 따라서 이를 결혼한 여성에게 사용하였음은 여성이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의 부속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라면 (다)처럼 결혼할 때의 여자를 부모가 다른 이에게 ‘주는’ 물건으로 표현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발상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 과거사회는 여성을 반신불수의 병신을 만들어 노앗기 때문에(번민호, 우리 여성의 변위를 논하라)

마지막으로 [여성은 전사다] 은유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삶은 전쟁이다] 은유와 관련이 있다. 인생이 적이 될 목표를 정하고 이들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 전략과 전술을 도모해야 하는 전쟁터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은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대표적 은유의 예이다.¹⁷⁾ 따라서 삶의 주체인 여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전사’를 설정하고 이에 싸우다, 분투하다, 영웅 등을 관련 표현으로 포함시켰다.

(9) 가. 인격을 확립키 위하여는 반드시 **반기를 높히 드는 날**이 잇서야 할 줄 안다(3권11호)

나. 흥미보담도 우리는 **직업 전선**에 나서 그들과 **싸워야지요**(5권4호, 여학교졸업생좌담회)

다. 유학을 갔다오면 얼마나 **영웅**이 되어질 것처럼 처녀영웅심을 가슴에 품고(7권4호 깃뚝을 양식삼든 그때여)

라. 각성한 우리 신여성들은 즉각적으로 예방치료에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절멸근절에 **분투**치 안하면 안될 것입니다.(3년1호, 여자해방과 우리의 필연적 요구)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여성필진은 은유를 통해 남자의 완롱물이거나 주인의 말에 따라 집안일을 수행해야 하는 인형이나 기계와 다를 바 없었던 그들의 처지를 비판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인형이나 기계는 그

17) 전사는 기본의미(싸움을 싸우는 전사)로 계속 기술되다가 1991년 <우리말큰사전>에 와서야 파생의미(어떤 사업에서 온 힘과 마음을 다 기울여 열심히 노력하는 일꾼)로 뜻풀이가 돼 있다.

를 소유, 지배하는 주인이 있다는 공통점에서 보면, 다른 나라에서 팔려왔거나 죄를 지어서 천인으로 떨어진 이들이 처해있었던 종/죄인과 동일한 상황으로 묶이게 된다. 결국 이들 은유를 한 데 모으면 신분제도가 사라지고 없는 상황에서 예전의 종과 다를 바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전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성 필진의 주된 주장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었다.¹⁸⁾ (여기 뒤에 있는 구절을 각주로 처리해 주세요)

4. <신여성> 여성필진의 은유 표현 속에 담긴 성차적 특징

<신여성> 발간 당시 여성은 근대 교육을 통해 신문명을 받아들여 남성 지식인과 동등하게 근대적 주체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가부장적 사고 방식에 젖은 남성들이 여성을 식민지화함으로써 여성은 현실적으로 타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여성 필진의 글에는 이처럼 이중삼중의 식민 상태에 처하였던 자신의 현실을 드러내는 특징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번 절에서는 여성필진의 은유표현 속에 담긴 성차적 특징을 찾아보려고 한다.

대부분의 글을 남성 지식인이 집필을 하였으므로¹⁹⁾ 은유의 사용 빈도가 응당 남성필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당연하여 보인다. 그런데

18) 따라서 [여성은 종이다][여성은 전사다]은유가 빈도수 높게 분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19) 김수진(2009)에 따르면 남성필자가 약 50%, 여성필자가 약 25%, 편집부 및 기자의 글이 19.7%, 확인되지 않은 필자가 약 5%라고 한다. 더군다나 여성은유가 가장 많이 나타난 논설류는 남성필자가 59%, 여성필자가 29%였고, 두 편 이상 실은 필진은 남성이 여성보다 5배가 넘어 여성은유의 빈도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빈도수만이 아니라 여성을 형상화한 은유 중에 여성에게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여성은 흡혈귀/기생충] 은유가 있다거나 결혼을 상거래 은유로 적시한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²⁰⁾

물론 근대 의식을 공유한 지식인답게 여성 필진과 동일한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 여성을 중, 인형, 노리개, 죄인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해 나갈 주체로 신여성을 설정한 것이 그 예이다.

(10)가. 오늘날의 소위 신녀성이라는 사람들도 남자의 화초-인생의 장식

20) 아래 표는 여성 관련 은유 표현을 정리한 것이다. 현재 빈도수가 논거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어휘들의 중복사용을 일일이 계산하여 그 빈도까지 제시하지는 않았다.

〈표1. 〈신여성〉 필진의 성별 은유 표현 양상〉

	남성	여자
기계	기계	기계
동물	끌려가다, 부린다, 풀어놓다 (농 안의) 작은새, (목매인) 견, 병아리	끌려간다, 부리다
중	굴복하다, 순종하다, 밟히고 채이다 거느리다, 데리다, 따라가다, 타파하다 부리다, 얹매다, 끌다 노예, 종사리, 몸파리꾼	얹어매다, 끌려가다, 부러먹는다 밑에, 아래 책임자, 폭군 노예, 종(년), 시종군
죄인	가두어 두다, 구속하다. 감금하다, 백방되다 유치장	간하다, 감금되다 감옥
기생충	의뢰하다, 붙다, 빼앗다. 기생충	
흡혈귀	빼앗다 흡혈귀, 약탈자, 도적	
물건	돈에 팔리다, (권리)넘기다, 매매하다 물건, 금강석,	사다, 팔다 상품, 물건
완롱물	매어놓다, 달리다 인형, 노리개감, 작란감, 장식품, 화초	노리개, 인형
금치산자	기름을 맞는다 아이, 귀머거리, 병어리	길리우다 반신불수의 병신
전사	싸우다, 분투하다, 응전하다, 공격하다 전사, 투사, 대장	싸우다, 분투하다, 승리하다, 공격하다, 점령하다, 반기를 들다, 영웅, 투사, 전사, 여장사

품 노리개라는 말을 듣는 것도 무리한 말이 아니겠다.(3년6호, 금일의 여성과 현대의 교육)

나. 처녀썩에는 얼마간이라도 사회적으로 활동하던 여자가 한번 시집을 간후에는 그만 그 가정또는 남편에게 **중된 몸 되어서** 그 일생을 가정이라는 **갑옥** 속에서마 썩이고 말게 하는 것은 현 우리사회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한독약일 것이올시다(1년2호, 뜻든말과 다른 조선신여성)

다. 조선여자의 선봉이 될 대장들(4년9호, 조선의 향할 길)

[여성은 중이다] 은유는 앞서 지적했지만, 신여성조차도 결혼 후에는 봉건질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비판한 것으로, 남성 필진은 이를 자유연애, 자유결혼의 신사상보다 더 강력한 매매혼의 관습을 없애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로 다룬다.

(11) 가. (축치족의 결혼)매매의 의미를 가진 감시라든지 代償이라든지의 말은 쓰지도 안코 또 그러케 생각도 안이하는 것이올시다. 소위 **문명국사람들이 돈에 팔려서** 식집 가고 장가가는데 비교해서 존경할 만한 일이올시다.(4년1호, 각 민족의 결혼형식)

나. 몇 가지의 저고리와 치마깁(所謂納幣)이나 또 혹은 몇 푼 중의 금반지(所謂結婚斑指)로써 자기의 아내라는 그 여자를 아주 **사버리고** 마는 셈이다.(2년5호, 죽은 혼인과 허튼 혼인)

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것이 안이요 혼인 비용으로 **사온** 것이요 나 역시 당신을 사랑해 보지 못했고 **팔려** 온 것에 지나지 못하였습시다. 나는 가겠으니 리혼해 주셔요. 그러면 이때까지의 **거래**는 아주 지워 버려주마.(3년11호, 인형의 가와 해부인)

(11)은 ‘결혼하다’를 ‘사다’, ‘팔다’ 그리고 ‘거래하다’로 표현한, [결혼은 상거래]은유의 예이다. 이러한 시각은 여성 필진의 글에서도 드러나나 여

성의 글은 수필이나 사회세태풍자와 같은 란이 많으며, 자신이 돈에, 권력에, 관습에 팔려가는 대상이 되었음을 한탄할 뿐이지만,²¹⁾ 남성 필진은 논설류의 글에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매매혼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가)는 축치족의 결혼제도를 소개하면서 현재 결혼이 시장에서 물건이 거래되듯이 진행됨을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결혼을 상거래와 동일하게 여기고 있음은 (나)(다) 역시 동일하다. 특히 (나)의 ‘사다’와 함께 쓰인 ‘버리다’의 의미에 주목하여 보면, 화자의 결혼제도에 대한 악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버리다’는 본동사가 아닌 보조동사로 쓰일 때 ‘제거>완료>환원불가능성>바람직하지 않음>악의성’²²⁾의 의미변화를 보인다. 어떤 사물의 제거라는 기본적인 의미에서 시작하여 화자의 부정적 관점을 표시하는 표지로 발전한 것인데, 이의 사용으로 결혼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화자의 불만이 묻어있는 예문으로 해석된다.

21) 다음과 같은 예가 여성이 결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이는 전형적인 예이다.

(1) 가. 여자를 상품으로 알고 물건으로 이는 그런 관습으로 여전히 그런 행동을 한다.(3권11호, 연인도 폭군)

나. 우리 부모는 돈과 세력, 얼굴과 공부 이것에 맞쳐서 자기의 귀여운 딸자식을 헌신짝 버리드시 그리로 **주어버렸답니다**(4권10호, 흥한 씬)

(가)는 여성이 물건처럼 취급되는 결혼제도의 문제점을 이야기한 예문이며, (나)는 여자의 결혼을 부모가 다른 이에게 ‘주는’것으로 표현한 예문이다.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의 의미를 가진 ‘주다’의 목적어 자리에 여자를 넣어, 결혼이 누군가에게 여자를 물건처럼 주는 행위임을 의미한다.

22) 이성하(1998: 124)에 실린 예문을 보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가. 철수가 순이의 도시락을 먹는 일이 완전히 끝났다.(제거,완료)

나. 철수가 순이의 도시락을 먹어서 도시락이 없어졌다.(제거, 완료, 환원불가능성)

다. 철수가 순이의 도시락을 먹는 일은 참 안 된 일이다(바람직하지 않음)

라. 철수가 순이의 도시락을 먹음으로 순이에게 손해를 입혔다.(악의성)

결혼을 둘러싸고 자신이 팔려가는 물건처럼 여겨진다는 여성화자의 심경도로에 비해 좀 더 진보된 바이지만, 그러나 이 역시 이론적 무장에 불과할 뿐, 현실적 실천력은 그리 높지 않았다.²³⁾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던 것(김수진 2009:459)처럼 일본에서조차 의제로 다루었던 여성 참정권이 나 모성보호 문제 등은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단지 양처현모론에 치우쳐 여성의 수양만을 강조하였던 남성 지식인들의 태도가 이를 증명한다.

(12) 가. 종래의 조선의 교육이 가정과 몰교섭함에 이면이 있다. 하나는 가정적 교육의 전무요 또 하나는 가정과의 협조가 업는 것이다. 학교에서 아모리 역설하고 생도들을 감복시킨다고 하더라도 각 가정에서 자녀에게 가정 일을 시키지 안는다면 학교로서도 어찌할 수 업는 일이다.(7권10호, 조선여자교육개선안)

나. 일어 영어 지리 역사 수학 물리 화학 그리고 여자에게 제일 필요한 요리 재봉 음악 위생 영양학 간호사법 육아사법 가튼 것을 한 벌씩 쑥내려 배웠슬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리라(6권3호, 교문을 나설 누이에게)

다. 아무래 여성해방을 부르짖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논하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여자의 근본적 욕망 또는 기원은 현모양처됨에 있다. 물론 그 내용에 변화는 잇겠지마는 여성의 절대다수는 누가 강제하지 안트라도 저 스스로

23) 이는 강소영(2010:12)에서 여성비하적인 남성의 시선으로 처리한 예문을 재해석하였을 때도 드러난다.

(1) 가. 더 좀 쪽쪽하고 애교잇는 **시중군**이 되어 달라 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남자의 녀학생에게 바라는 첫 조건이오(4년4호, 일반 남자의 그릇된 선입견)

나. 암만 생각해도 여자는 선천적으로 남자의 **지도 아래**에 잇서야 될 것 갓хай(7권2호, 총각좌담회)

(1)은 남성 필진 스스로 부인을 시중군으로 여기고 있는 남자의 모습(가)을 지적하거나, 공개된 자리에서 여자는 자기의 수하임을 밝혀(나) 현실의 남성은 여성의 해방을 실천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인다.

로가 현모양처가 되고 심혼 본능적 충동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7권1호, 신여성과 구여성의 행로)

(12)는 여성의 사상개조와 신교육을 강조했던 남성 지식인들이 신여성의 욕망을 현모양처로 귀결시키거나 여성의 교육을 양육과 가사노동에 관련된 것으로 제한하는 예문으로, 결혼 후 여성의 가정 회귀를 긍정적 가치로 변호했던 시선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남성의 감추어진 여성비하나 통념적인 공격을 보이는 예는 아래 [여성은 기생충] [여성은 흡혈귀] 은유에서 더 잘 드러난다. 남성 필진의 글에는 신여성의 허영심 많음을 고발하고, 여성이 육체를 이용하여 자기들에게 빌붙어 살아가는 기생충이거나 자기의 고혈을 빨아먹는 흡혈귀라고 언명하는 예가 다수 발견된다.

(13) 가. 소위 대부분의 신여성들은 이 도적년 소리를 드러도 쌀 만큼 남자로부터 남자의 노력의 대가를 빼아서 간다.(3권6호, 금일의 여성과 현대의 교육)

나. 남의 힘에 거저먹기에 남자에게 붓치어서 사는 여자, 이것을 종녀자라 하며 기생충과 흡혈귀라 한다.(4권9호, 조선여성의 향할 길)

기생충은 <조선어사전>에는 기본의미로만 기술되었으나 <큰사전>에 기생계급의 동의어로 처리된 기생충②의 존재에서 미루어 보듯 비유적 의미를 획득하여, 1920년 1930년 당시 남에게 의지하여 사는 존재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예로 활발하게 쓰였음을 짐작케 한다. 1991년 <우리말 큰사전>에 첩을 이르는 말로도 기술되어 있어, 기생충의 의미에 여성이라는 성별이 개입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은 흡혈귀] 은유 역시 [여성은 기생충]과 비슷하게 1930년대 은유적 표현으로 활발하게 사용되

어 <우리말큰사전>에 비유적인 말로 기술되었다.²⁴⁾ 이 역시 여성을 남자의 육체를 손상시키는 귀신으로 언술²⁵⁾하여 남성에게 빌붙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성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 은유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남성의 구직도 힘든 마당에 여성의 취업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을 무시한 발언이다. 따라서 [여성은 흡혈귀/기생충] 은유를 따라가면, 여성의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적인 사실만 제시한 뒤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남성 필진의 생각이 읽혀지며, 이러한 입장 차이로 여성 필진과는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²⁶⁾ 따라

24) (1)가. 기생충 자립생존이 어려운 동식물이 다른 내부 또는 외부에 영양을 얻고 산다.

기생계급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계급, 범죄상습자, 불구 질자 따위.=기생충②(큰사전, 1947)

나. 기생충 ① 자립생존이 어려운 동식물이 다른 내부 또는 외부에 영양을 얻고 산다

②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남에게 기대거나 덧붙어서 사는 사람을 일컫는 말

③ 침의 은어 (우리말큰사전, 1991)

(2)가. 흡혈귀 사람의 피를 빨아 먹는 전설의 귀신(조선어사전, 큰사전)

나. 흡혈귀 ①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전설적인 귀신

② 사람의 피를 빨아먹다시피 하는 사람이나 괴롭히는 사람을 비유 (우리말큰사전, 1991)

25) 이와 같은 예는 ‘유행만 부지런히 쫓는 여자, 그런 사람들을 나는 타락된 계집 요마라고 봅니다. (3권11호 미혼남녀들의 바라는 남편, 바라는 안해)’ ‘근래 여성출신으로 연애과정에서 의한 남의 제2안해를 가리켜 **허영의 傀儡**와 가티(7권2호, 여성의 투철한 자각의 의하여)’와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26) 이러한 여성 필진과 남성 필진의 시각차로 남성 필진의 글에서 여성이 기생과 다름 없는 존재로 평가되는 시각이 노출된다.

(1) 가. 농촌의 여성은 오래동안 남자의 완롱물이였습니다. 절대복종의 使役機이였습니다. 더욱 그 다수가 남자의 淫樂器이였습니다. 또 장래 淫樂器 될 운명에 있습니다.(3권1호, 긴급동의)

다. 그들 신부들은 벌써 오랫동안 쓰라린 경험과 인간다운 인간성 여자다운 여자의

서 아래에서와 같이 여성 필진이 남성과 대등한 파트너이길 원하는 목소리와 다르게 현실의 남성은 곱고 순종적인 여성을 원하는 불협화음을 연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4)가. 째째로 되려다보는 화초도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이 귀엽고 소중한대 하물며 일평생을 의뢰할 자기 안해가 추물이여야 안될 말이지요(7권2호, 총각좌담회)

나. 녀자가 남자의 중속적 관계 밋헤 잇섯고 또 잇게 된 것도 모다 그 할수 업는 환경과 이 생리적 조건이 근본원이라고 생각하니까요(7권2호, 총각좌담회)

(15) 가. 음식 잘하고 심부름 잘하는 계집 하인이 잇는 러관에 돌아오는 것밖에 되지 못하고(중략)남편을 사랑하게 되야 남편의 말벗이 되고 의론상대가 되고 또 작란 상대가 되야 안해로보다도 정다운 친구가 되어다라고요(2권11월, 남녀공개장)

나. 그들의 결혼은 간난하고 궁핍함에 불구하고 리상화되어잡니다. 그것은 인제야 남편과 안해가 그를 위하여 싸우지 아니하면 안 될 공통한 목적을 가지고 잇는 것이오, 그들의 일치한 싸움은 의견의 교환에 의하야 다함업는 령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3권6월, 결혼 때문의 교육)

(14)는 남성이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맷시이 모든 것을 내여버린 지가 오래였스니(7권5호, 남자의 歡樂境)

라. 기생이라는 것은(중략) 말하자면 돈 만흔 사람만큼 풍족하게 사치스러웁게 편하게 살너고 애쓰고 허위적어리는 여자의 무리이외다(2권6호, 소위신여성내음새)

(1-가, 나, 라)는 淫樂器, 기생과 같이 직접적으로 기생이라 칭하고 잇는 예이며, (1-다)는 기생을 신부로 은유화하여 부인이 기생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여겨졌음을 보여준 예이다. 여성필진이 기생을 ‘남성지배적 사회’희생의 제물’과 같이 은유화한 것과 대조적이다.

좌담회 글의 일부로, (가)는 아내를 남성이 가끔씩 쳐다보는 화초와 동일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남성의 시각을 담고 있어 (나)와 함께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15-가)에서 여성이 자신을 계집하인처럼 대한다고 비판한 남편의 모습 그대로이며, 따라서 여성필진의 글에서 강조된, 공통한 목적을 두고 같이 싸워나가는 [부부는 동지대](15-나) 은유가 남성 필진의 글에서 허위로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여성 관련 은유표현은 <신여성> 필진이 여성의 해방을 위해 개조해야 할 현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장치였음을 보았다. 그리고 <신여성> 여성 필진은 남성 필진과 동일해 보이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은유 표현을 사용하여 각각의 성차적 특징이 이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신여성>은 여성을 위한 잡지였지만 이를 주도해간 것은 남성지식인들이었기 때문에, <신여성> 담론이 곧 여성들의 이념적 지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고는 이를 극복하고자 여성필진의 글에서 뽑은 여성 관련 은유 표현만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은 자신이 식민지 지식인이 아닌 봉건사회질서조차 벗어나지 못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중, 인형, 노리개 등의 은유로 표현하였고, 이러한 구습에 맞서 이겨내려는 의지를 전사로 은유화한 데서 읽을 수 있었다. 이러한 시각은 사회주의나 탈식민주의와 같은 이념을 공유한 남성 지식인들과 겹칠 수 있어서 여성 관련 은유

표현 중에 일부가 남성 필진과 동일하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성에게 놓인 사회적 현실을 외면한 채 여성이 주체적으로 서지 않는다고 은밀하게 비판하는 남성지식인의 시선이 여성 필진의 글에서는 발견되지 않아, 여성과 남성의 성적 특징이 갖는 차별화된 시각을 볼 수 있었다. 본고는 서구의 남녀평등사상을 배워나가던 신여성이 남성지식인의 사상을 따라갈 것이란 예측에서 시작하였지만, 연구의 결과, 여성이라는 성의 차이가 남성과는 다른 시각을 도출해 낼 수 있었음을 보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자료

박달성, 방정환, 차상찬, 『신여성』, 개벽사, 1923-1934.

논문과 단행본

- 강소영, 「말뭉치 자료를 이용한 문화지형어 사전 편찬의 실제」, 『이화어문논집』 24,25합본집, 2007, 181-207.
- 강소영, 「근대의 대중매체 속에 투영된 여성과 여성다움」, 『한국고전연구』 17, 2008, 265-291쪽.
- 강소영, 「은유표현을 통해 본 신여성의 사회적 위치」, 『어문연구』 64, 2010, 5-30쪽.
- 구동희, 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1995, 325쪽.
- 구현정, 「남성형-여성형 어휘의 형태와 의미연구」, 『국어학』 25, 1995, 99-136쪽.
- 국립국어연구원,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4』, 1999, 408쪽.
- 길진숙, 「일제강점기 대중가요 속의 서울, 모던, 여성의 풍경」,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2009, 57-96쪽.
-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2009, 510쪽.
- 김양선, 「식민주의 담론과 여성 주체의 구성」, 『여성문학연구』 3, 2000, 261-287쪽.

- 김종도 역, 『인지문법의 토대』, 박이정, 1987, 626쪽.
- 김종도, 나익주 역, 『문법과 개념화』, 박이정, 1999, 612쪽.
- 김창섭, 「국어 어휘체계에서의 남성향과 여성향」, 박창원 외, 『언어와 여성의 사회적 위치』, 태학사, 1999, 87-108쪽.
- 김형철, 「개화기 신문의 어휘 연구-제국신문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5, 1994, 115-162쪽.
- 김형철, 『개화기 국어 연구』, 경남대출판부, 1997, 386쪽.
- 나익주 역, 『마음의 시학』, 한국문화사, 2003, 688쪽.
- 노양진, 나익주 역, 『삶으로서의 은유』, 서광사, 1995, 298쪽.
- 문옥표 외, 『신여성』, 청년사, 2003, 326쪽.
- 민현식, 「개화기 국어 문체에 대한 종합적 연구(1)」, 『국어교육』 83, 1994, 113-152쪽.
- 민현식, 「개화기 국어 문체에 대한 종합적 연구(2)」, 『국어교육』 84, 1994, 101-123쪽.
- 민현식, 「국어의 여성어 연구」, 『아세아연구』 34, 1995, 7-64쪽.
- 민현식, 「개화기 국어 어휘 연구 방법의 재검토」, 『동양학』 32, 2002, 257-289쪽.
- 민현식, 「개화기 국어 변화의 계량적 이해」, 『한국어문학연구』 39, 2002, 47-80쪽.
- 박애경, 「기생-가부장제의 경계에 선 여성들」, 『여성이론』 4, 2001, 220-233쪽.
- 박영섭, 『개화기 국어 어휘 자료집 1-5』, 서광학술자료사, 1997, 382쪽.
- 박영섭, 「개화기 국어 어휘 연구」, 『한국어의미학』 11, 2002, 161-176쪽.
- 서지영, 「이미지와 환상을 넘어서」, 『여성이론』 12, 2006, 104-122쪽.
- 송 민, 「개화기 어휘 개신에 대하여」, 『어문학논총』 11, 1992, 41-61쪽.
- 수유근대매체연구팀, 『(매체로 본 근대여성 풍속사) 신여성』, 한겨레신문사, 2005, 363쪽.
- 심광현, 「유물론적 문화지형학 구성의 전망」, 『문화과학』 1, 1992, 91-116쪽.
- 이기문, 「개화기의 국문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5, 1984, 55-84쪽.
-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 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 2004, 438쪽.
-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 계몽기 지식의 발전과 사유지평의 확대」, 소명, 2006, 366쪽.
- 이명선, 「근대의 신여성 담론과 신여성의 성애화」, 『한국여성학』 19권2호, 2003, 5-37쪽.
- 이성하, 문법화의 원리, 한신문화사, 1998, 368쪽.

- 이정화 외 역, 『은유』, 한국문화사, 2003, 482쪽.
- 전은정, 「근대 경험과 여성주체 형성과정」, 『여성과 사회』 11, 2000, 29-45쪽.
- 전혜영, 「연어구성에 나타난 남녀 은유의 양상」, 『여성학논집』 22-1, 2005, 53-77쪽.
- 조혜자, 「성 고정관념: 왜 끈질긴가?」, 『한국심리학회지』 6-3, 2001, 107-125쪽.
- 차혜영, 「1920년대 잡지의 재편과 타자 표상의 상관관계」, 『역사와 현실』 57, 2005, 49-80쪽.
- 한기형, 「근대어의 형성과 매체의 언어전략」, 『역사비평』 71, 2005, 356-377쪽.
- 한기형 외, 『근대어 근대매체 근대문학 : 근대매체와 근대언어질서의 상관성』, 성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501쪽.
- 홍인숙, 『근대 계몽기 여성담론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2쪽.
- Kovecses, Z, “The ‘container’ metaphor of anger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Hungarian”, *Rom a Metaphorical Point of View: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Cognitive Content of Metaphor*, Verlin: Walter de Gruyter, 1990, 117-145쪽.
- Kovecses, Z, “Metaphor and folk understanding of anger”, *Everyday Conceptions of Emotion: An Introduction to the Psychology, Anthropology and Linguistics of Emotion*,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 1995, 49-71쪽.
- Lyons, J.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897쪽.

ABSTRACT

Women's Voice Sounding through Men

Kang, So-yeong*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find metaphoric expressions related to women in *〈Sinyeoseong〉*, to classify them by male and female writers, and to examine whether sexist consciousness is reflected in the metaphoric expressions. With socio-cultural changes in the early 20th century, women's voice for freedom was lifted and inspired women stood up and went out into the society. For the women who attended school, had a job and experienced a life totally different from the past, the society gave the title 'new women' but its evaluation of such women was double-sided. Their names were enlisted as leaders who would lead the future of Korea, but at some moment, they were undervalued as a group of useless vanity. This study reviewed these views using the texts of *〈Sinyeoseong〉*, which led discourses on new women in those days. We first restructured the social situation in those days based on vocabulary system 'male + X' and 'female + X' and found that various terms were coined with women'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but women could not enjoy a secure social position as evidenced by their remaining in the a biased 'female+X' form. This phenomenon was also found in the result of analyzing women-related metaphoric expressions collected from women writers' articles in *〈Sinyeoseong〉*. That is, from metaphors such as [Women are servants], [Women are dolls] and [Women are playthings], we can infer that women in those were still under the old system of feudalistic order. Of course, these views had to be shared with male intellectuals who led modern discourses in those days, and for this reason, the same metaphoric expressions were also observed in some male

*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HK Research Professor

intellects' writings. As shown by the fact that male intellectuals clamored for women's economic independence only in word but were not active in establishing social systems, however, there was a difference, though insignificant, between male and female writers. This study believes that the difference reflects their sexual difference and it explains why women showed more advanced thoughts than men.

Key Words New women, <Sinyeoseong>, metaphorical expressions, [Women are servants], sexual difference.

논문투고일 : 2010. 10. 15
심사완료일 : 2010. 11. 26
게재확정일 : 2010. 12. 3